

ESCO사업 홍보에 시공협회가 적극 나서겠다



▲(사)한국열관리시공협회를 이끌고 있는 신현석(申鉉錫) 회장은 이 단체의 제9대, 10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가운데 올 9월 보일러설치시공업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에너지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정교육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지난 96년에는 에너지절약활동에 아버지 한 공로로 통상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펼친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지난 2001년 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무등록자가 시공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확정하였고, 시공업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최근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폐지되었던 난방시공업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부활시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건축물 준공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정책건의를 통해 난방시공업역을 현실화하고자 난방시공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온돌설치공사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계설비공사는 250㎡(약 75평)에서 350㎡(약 106평)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세시공업자의 애로사항인 사무실임대료 및 기술인력인건비 등의 최소화를 위해 사무실면적을 18㎡(약 5.5평)에서 12㎡(약 3.6평)으로 최소화하고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은 기술인력 및 사무실을 중복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시공협회에서 열관리시공협회로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8월 19일 산자부장관 주최로 열린 '고유가 극복을 위한 ESCO활성화 대책회의'에는 ESCO 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 단체장들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ESCO사업의 활성화에 너 나 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리였던 셈. 그중 보일러시공업자 단체인 (사)한국열관리시공협회 신현석 회장을 만나 협회의 사정과 ESCO사업 홍보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회원사 대부분이 난방시공업과 종속관계에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기계설비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데 이전 명칭인 "한국난방시공협회"는 특정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난방공사는 물론 가스시설공사 또는 기계설비공사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소비자 및 관련업체에 친숙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로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2004년 9월 1일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설치자격증소지자들의 법정교육이 부활되었는데 그 의미와 향후 교육운영방침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이상이며 에너지공급 및 수요의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재정부담이 매우 민감하여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국가 에너지 절약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의 다수가 사용하는 기름, 가스, 전기, 연탄 등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가자재의 설치·시공이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형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최소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안전과 기능향상 및 효율증진을 위해 매년 신기술이 개발되고 신제품이 보급되며 에너지절약시책과 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해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등

을 규제하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은 변화된 설치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예전의 시공방법과 기준을 습득한 경험자로부터 전수받은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공된 보일러를 사용하여 보일러 및 가스폭발, CO중독, 화재 등의 사고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있으며 시공상 흠으로 하자가 발생, 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소비자피해구제기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법정교육의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습득으로 시공업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에너지절약형 시공기술, 환경친화적인 시공기술, 변경된 관계법령, 안전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며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ESCO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유가의 폭등세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석유수입 부담금과 관세를 인하하는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사용이 많은 산업체에 대해 에너지관리진단과 시설개선자금의 지원 등 에너지소

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고유가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ESCO사업은 단순히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아 얼마만큼 아꼈고 비용회수기간이 어떻게 하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산업체에서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관리시공협회에서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신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협회는 매년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사고예방 실천 결의대회”를 각 지역을 돌며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가정용 보일러 청소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일러의 열효율을 높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및 ESCO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파급효

과,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 방법 등을 난방시공 기술인력 교육 및 월간 “열관리시공”지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에너지절약의 문제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단체장으로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또한 정부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지금의 고유가 시대는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에너지 자원은 한정돼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또한 상용화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불감증’에서 벗어나 산업체는 에너지절약 설비투자를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고효율기기 사용과 대기전력 차단 등 스스로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매년 2~3회씩 “열사용기자재 고효율시공 전문교육”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보급하고 정격시공, 에너지절약시공을 통해 새고 있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효율에너지기기 사용을 권장하고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절약시공법이나 에너지소비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해외자원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